

# 민주 '통합전대' 싸고 진통 여전

## “先합당전대” 개최설 사실 아니다” 해명 세력간 힘겨루기...23일 중앙위 분수령

통합 전당대회 개최 여부를 놓고 민주당 내부의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당장, 민주당 내부에서는 통합 전당대회 추진 세력과 단독 전당대회 추진 세력 간의 팽팽한 '힘 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은 21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통합 전당대회 이전 민주당 전당대회를 실시, 통합의 법적 요건을 갖추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해명했다.

김경록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지난 당무위원회에서 내일 모레 중앙위원회를 열어 통합을 추진하는 추진을 받기로 한 상황"이라며 "전당대회를 별도로 하는 방침은 전혀 추진될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 지도부가 오는 23일 중앙위원회를 통해 통합 추진의 수인 권한을 부여받는 것을 밀어 붙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민주당 지도부가 중앙위원회를 거쳐 통합을 추진할 경우, 민주당 단독 전당대회 개최를 통해 통합 추진에 대한 법적 요건을 갖추는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합은 시대적 흐름이고 국민적 요구라는 점에서 중앙위원회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민주당 단독 전대는

통합 일정상 시간이 촉박하고 명분도 없다"고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반면, 민주당 일부 원외위원장은 단독 전당대회 개최 요건인 전체 대의원 3분의 1의 서명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3일 개최되는 중앙위원회에서는 통합 전당대회와 민주당 단독 전당대회 개최 문제를 놓고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민주당 중앙위원장이 "이날 오후까지 4200여명에 이르는 민주당 대의원들로부터 단독 전당대회 개최 요구 서명을 받았다"며

"22일까지 적어도 4500여명의 서명이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원외위원장은 대의원 서명을 토대로 23일 예정된 중앙위원회에 단독 전당대회 개최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3일 개최되는 중앙위원회에서는 통합 전당대회와 민주당 단독 전당대회 개최 문제를 놓고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민주당 중앙위원장이 "이날 오후까지 4200여명에 이르는 민주당 대의원들로부터 단독 전당대회 개최 요구 서명을 받았다"며

서명 받아 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지난 6월 전국 위원회에서 7·4 전당대회와 관련한 당헌을 개정했다가 당헌 효력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전당대회 이를 전에 전국위를 재소집하기도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결국 중앙위원회의 논의 결과가 통합 전당대회 개최 여부에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중앙위원회가 통합 결정을 내린다 해도 법적 공방 등 상당한 여진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서명 받아 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지난 6월 전국 위원회에서 7·4 전당대회와 관련한 당헌을 개정했다가 당헌 효력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전당대회 이를 전에 전국위를 재소집하기도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결국 중앙위원회의 논의 결과가 통합 전당대회 개최 여부에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중앙위원회가 통합 결정을 내린다 해도 법적 공방 등 상당한 여진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어수선한 한나라 창당 14주년

## 홍 대표 "정기국회후 당 재편 하겠다"

한나라당이 21일 창당 14주년을 맞았다.

한나라당은 지난 1997년 11월 21일 신한국당과 '포파 민주당'의 합당으로 탄생했으며, 10년의 야당 생활을 맞은 뒤 2008년 2월 집권 여당이 됐다. 또 '국내 최장수 정당'이라는 정통성과 함께 원내 과반(169석)이라는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외형과 달리 14년을 맞은 한나라당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수도권 민심이 어마어마하게 추락했다. 당내에서는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후 몰아닥친 후폭풍 이래 최대 위기라는 말도 나온다.

이에 당내에서는 '혁명적 수준'의 쇄신을 외치는 목소리가 높지만, 백가쟁명식 논쟁 속에 내년 총선을 앞둔 '공천 물갈이론'이 공론화되면 자중지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수도 있다.

여기에 '안철수 바람'으로 상징되는 정치 신진세력의 등장과 야권의 '통합 바람'을 풍파해야 한다. 어떤 유력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의 '대세론'이 그동안 정당으로 여겨졌지만, 안풍이 수개월째 불며

'박근혜 대세론'을 흔들고 있어 한나라당의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다.

때문에 홍준표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당 14주년 기념식 인사말을 통해 "미래와 시대의 요구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가 끝난 무렵부터 바로 당을 재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처리되고 나면 쇄신연회를 열어 당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지, 또 국민의 재신임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1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소위원회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회의장 밖에서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자료를 살피며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회창, 내년 총선 불출마

자유선진당 이회창 전 대표는 2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선 비준, 후 보완을 당론으로 정했으나, 결과적으로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깊은 자괴감과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에 책임을 통감하고 내년 총선에 불출마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선(先) 대책이 시간적으

로 실현가능성이 없게 된 이 시점에서선 대책을 고집하기보다는 일단 비준에 찬성하고 부족한 부분을 정부가 성실하게 보완하도록 부대의견으로 요구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주장했다.

선진당은 지난 18일 의원총회에서 농민 피해대책 미흡 등을 이유로 '선(先) 대책 마련, 후(後) 비준안 처리' 당론을 재확인했다. 이 전 대표는 부대의견을 다는 것을 조건으로 비준에 나서자는 입장을 밝혔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이 전 대표의 불출마 선언은 당론인 선(先)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지만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 입지를 마련하려는 의도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이 전 대표는 "총선 불출마가 정계은퇴로 이어지느냐"는 질문에는 "정계은퇴와는 상관없다"고 못 박았다.

또 "대선을 앞두고 어떤 역할이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물음에 "그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야권 통합정당 당권후보군 윤곽

## 박지원·박주선·한명숙·박영선·문성근씨 등 도전

내달 17일 예정된 야권 통합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할 후보군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경선방식을 둘러싸고 정파별·세력별 마찰이 예상된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박주선 최고위원·김부겸·이종걸·이강래 의원 등이 출마를 준비해온 그룹이다. 정대철 삼일교과원과 김태방 전 국회 사무총장도 후보군이다. 야권 통합의 실무 역할을 해온 이인영 최고위원도 사실상 출마 결심을 굳혔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최근 출마 쪽으로 돌아섰다고 한다. 친노(親盧) 진영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어 '다크호스'로 꼽힌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에서 석패한 박영선 정책위의장도 거명된다.

비민주당 진영의 후보군 역시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혁신과통합'에서는 문성근 국민의 명령 대표가 출마 권유를 받고 있다. 시민사회 쪽에서는 김기식 혁통 공동대표, 이용선 혁통 삼일대표가 거론된다. 한국노총에

서서 이용득 위원장이 꼽힌다.

통합전대 경선룰을 둘러싼 정파간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과 혁통은 신선험합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민주당 내 독자전대파는 민주당이 여러 세력을 끌어들이는 흡수합당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자당의 후보를 지도부에 최대한 진입시킬 수 있도록 당원 중심의 전대대 방점을 찍고 있다. 반면 혁통을 비롯한 여러 세력은 국민이 최대한 참여하는 완전개방형 경선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여야, 새해 예산안 내달 2일까지 처리

여야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협의의를 갖고 새해 예산안을 법정 처리시한(12월21일) 내에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소속 정갑승 예결위원장은 이날 간사협의의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법정시한 내 여야 합의로 내년 예산을 처리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는 별개로 예산 기일을 지키고 합의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한불교조계종 문민정사 남골당 허가번호 : 제2006-1

## 극락전 남골당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 무등산 문민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별초를 하지않아 황폐화된 묘 때가 벗겨진 묘 동철기를 거치며 붕괴된 묘, 개인이거주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묘의식 및 친족, 이웃간의 상충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연묘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시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분봉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승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시신이 너무 뿌리박고 벌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정례비 초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모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재지변 속에 두고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남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민정사

무등산 문민정사 남골당 전경

무등산 문민정사 남골당 예약 및 봉안문의 062)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

### 가은 부동산

일곡동 토지 매매 최고 "병원" 부지

-대지면적: 980평  
-매매금액: 45억원  
-용자금: 20억원포함  
-한의원/치과전문병원등

상무지구 빌딩 매매

-대 지 : 257평  
-연건평 : 900평  
-보증금 : 4억3천만원 /월2200만원  
-용자금 : 10억원  
-매매가 : 38억

아파트 1층 상가 매매

-분양면적 : 106평  
-보3억5천만원/월 650만  
-용5억포함  
-매매가 15억5천만원 (현, 마트 / 치과)

상무지구 랜덤피아 사거리 010-8289-8549

### 수원지구 상가 분양·임대 전문

학원·병원·한의원  
고급식당·독서실·PC방  
노래방·실내골프장  
1층 근린생활

2층~7층 까지  
20(평)~210(평) 까지  
분양·임대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국민은행 2차  
코너정문 (5,000세대)  
★신한은행 모야엘가  
정문아파트(5,000세대)  
★롯데마트 앞 대방5차  
후문 (7,000세대)

신한공인중개사  
☎ 062)961-3377

### ★건축시공★ 해드립니다

원룸·상가·고시원  
도시형생활주택전문

- 수익성 상가
- 안전한 재산증식
- 노후보장
- 퇴직자 환영

설계·기획부터 책임마감까지  
원스톱으로 시공해드립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중 (전남대 정문 2분)

- ★1억에 5채
- ★1년간 임대수익보장
- ★취등록세 면제
- ★재산세, 양도세 혜택
- ★항시 건축토지구할

(주)대신종합건설  
☎ 010-6670-9800

###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다와우선컨설팅부, 매수선정대리업체(법인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 (무료상담)

다가구주택

- 북구 문흥동 3층다가구주택 대지75평 건평130평  
감정가3억3천만 최저가2억3천만

농지및토지

- 나주시 봉황면 옥곡리 과수원3,600평  
감정가 2억3천만 최저가 1억6천만
- 화순군 이양면 오류리 농지(관리지역)1880평  
감정가 1억1천만 최저가 7천6백만

전원주택

- 담양군 남면 구산리 단독주택 대지152평 건평43평  
감정가8천7백만 최저가6천2백만
-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단독주택 대지927평 건평42평  
감정가 1억7천만 최저가 1억2천만

근린용지

- 남구 백운동 4차선대로변 대지70평(준주거지역)  
감정가 2억9천만 최저가 2억

토지매매

- 화순군 도곡면 도곡천방향4차선도로변 관리지역  
농지1500평 매매 평당50만
- 담양군 남면 구산리 향원당향방영부근 대지224평  
관리지역 매매 평당50만(조정가)

광주 남구 월산동 구 서부경찰서 사거리  
T. 010-4911-4989 FAX. 062-226-3607